존 레전드, 캐럴 음반 '레전더리 크리스마스' 발매

뮤지션 존 레전드(John Legend·40·사진)가 달콤한 캐럴로 돌아왔다.

음반유통사 소니뮤직은 14일 레전드가 새 앨범 '레전더리 크리스마스' (A Legendary Christmas)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6곡이 담긴 앨범은 '실버벨' (Silver Bell)과 같은 고전적인 캐럴부터 재즈 느낌이 물씬 나는 신곡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타이틀곡 '브링 미 러브' (Bring Me Love)는 펑키한 사운드에 성탄절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신나는 분위기를 녹여냈다.

수록곡 '해브 유어셀프 어 메리 리틀 크리스마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는 55회 그래미어워즈 최우수 재즈 보컬 앨범상의 주인공인 에스페란자 스팔딩(Esperanza Spalding)과 듀엣으로 불렀다.

소니뮤직은 앨범 발매를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음악사이트 멜론 이벤트 페이지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7곡을 다운로드한 뒤 감상평을 남기면, 1명을 뽑아 오는 12월 8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존 레전드 콘서트에 참석할 기회를 준다. 소니뮤직과 멜론이 공연 티켓과 왕복 항공권, 숙박권을 제공한다.

2004년 1집 '겟 리프티드(Get Lifted)' 로 데뷔한 레전드는 '세이브 룸(Save Room)' , '피.디.에이(P.D.A)' , '오디너리 피플(Ordinary People)' 등 여러 히트곡을 쏟아냈다. 그래미상 수상만 10회에 달하는 그는 최근 K팝 그룹 레드벨벳의 웬디와 협업해 화제가 됐다.

워너원, 또 음원 유출, "강경 대응할 것"

그룹 워너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봄바람' 음원이 유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워너원의 정규 1집 '1¹¹=1 (파워 오브 데스티니(POWER OF DESTINY)' 타이틀곡 '봄바람' 음원과 가사가 전날부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돌았다.

워너원이 공개하지 않은 음원이 유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에도 컴백을 닷새 앞두고 두 번째 미니앨범 '0+1=1' (I PROMISE YOU) 타이틀곡 '부메랑' 과 수록곡 '골드' 등의 음원이 나돌았다.

매니지먼트사 스윙엔터테인먼트는 "음원 파일이 유출된 직후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 신고 등 내부조치를 취했다." 며 "매우 유감이며, 유포자 출처를 찾아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앨범은 워너원의 정규 1집이자 마지막 앨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워너원은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팀이 결성될 당시 2018년 12월 31일로 활동 종료를 예고했다.

방탄소년단, 티셔츠 논란 사과

방탄소년단(BTS) 측이 원자폭탄 투하 장면이 담긴 티셔츠를 착용한 문제와 관련해 사과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당사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소속 아티스트들 활동에 있어 전쟁 및 원폭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한다." 며 "충분히 체크하지 않고 당사 아티스트가 착용하게 됨으로 인해 원폭 피해자분들께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리고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고 전했다.

앞서 일본의 TV아사히는 지난 9일 예정됐던 방탄소년단의 '뮤직스테이션' 출연을 연기했다. 방송국 측은 "방탄소년단 멤버가 착용한 티셔츠 디자인이 파문을 일으켰다." 며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결과 출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티셔츠는 소속 멤버 지민의 사복으로,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광복을 맞은 한국 국민들의 사진과 함께 애국심(PATRIOTISM), 우리의 역사(OURHISTORY), 해방(LIBERATION), 한국(KOREA) 등의 단어가 쓰여있다.

소속사 측은 또 과거 한국 잡지 촬영에서 소속 멤버가 나치 문양 '하켄크로이츠' (Hakenkreuz)가 들어간 모자를 착용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의 역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다." 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이어 이 문제를 지적한 미국의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에 사과를 담은 서간을 전했다고 밝혔다.

1238호 숫자퍼즐 정답

5	8	1	6	9	2	7	4	3
9	7	3	1	8	4	5	2	6
4	6	2	3	5	7	9	8	1
1	3	4	5	2	6	8	9	7
8	5	9	7	4	3	6	1	2
6	2	7	8	1	9	3	5	4
7	1	8	2	6	5	4	3	9
3	4	5	9	7	1	2	6	8
2	9	6	4	3	8	1	7	5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믿거나 말거나 유유히 흐르는 대자연의 흐름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의 어느 날 60대의 신사가 필자를 찾아와서 운명상담을 처음 해본다는 것이다. 일단 필자가 그 분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선생님의 팔자(八字)를 볼 때 예전부터 사주 상담을 많이 다녀본 팔자가 되는데요."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분이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서 놀라는 것이다. 여하튼 필자가 이어서 건넨 이야기는 "현재 지나고 있는 선생님의 운(運)의 흐름을 볼 때 사모님의 건강이 매우 염려스러운 운의 흐름이 되는데 사모님은 건강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으니 그 분이 하시는 말이 "집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필자를 쳐다본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지금의 운의 흐름을 볼 때 사모님과 인연이 아주 불안하거나 사모님의 건강이 매우 염려스러운 운의 흐름을 지나고 있으니...."라고 말을 하는데 신사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괜히 혼자서 성을 내면서 사무실을 나가버리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그 신사분에 대한 일은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필자의 사무실에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원장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올해 초에 집사람한테 췌장암이 발견되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몇 달 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유유히 흐르는 대자연(大自然)의 흐름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대자연의 이치입니다."라고 조언해 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 풍수지리 출장 감정 |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